



本书荣获“韩国儿童文学振兴会推荐图书”

凿壁者

凿壁者丛书
韩文版必读世界名著

一千零一夜

아라비안 나이트

[韩]姜明姬 译
崔荣根 注



赠送120分钟
高清朗读光盘

北京外国语大学等九所高校韩语系教师联袂推荐，遴选最受韩国人欢迎的世界名著韩文译本。

多所北京著名高校韩语系大学生通读并划出生词，由权威专家、教授作注。



中国宇航出版社

版权所有 侵权必究

아라비안 나이트 / 一千零一夜

Copyright © 2009 by Jigyungsa Ltd., Publishers

All rights reserved.

Original Korean edition was published by 2009 by Jigyungsa Ltd., Publishers

Original Korean Copyright in china © 2010 by China Astronautic Publishing House

Original Korean Copyright in china arranged with 2010 by Jigyungsa Ltd., Publishers

through AnyCraft-HUB Corp., Seoul, Korea & Beijing Kareka Consultation Center, Beijing, China.

本书韩文版由著作权人授权中国宇航出版社独家出版发行, 未经出版者书面许可, 不得以任何方式抄袭、复制或节录本书中的任何部分。

本书版权登记号: 图字: 01-2010-7098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一千零一夜: 朝鲜文 / (韩) 姜明姬编译; 崔荣根注释.
—北京: 中国宇航出版社, 2011.1

(凿壁者丛书. 韩文版必读世界名著)

ISBN 978-7-80218-882-2

I. ①一… II. ①姜… ②崔… III. ①朝鲜语—语言读物
②民间故事—作品集—阿拉伯半岛地区 IV. ①H559.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253110号

策划编辑 于 慧
责任编辑 朴春姬

插画设计 金世稳
责任校对 于 慧

出 版 社 中国宇航出版社

社 址 北京市阜成路8号 邮 编 100830
(010)68768548

网 址 www.caphbook.com/www.caphbook.com.cn

经 销 新华书店

发行部 (010)68371900 (010)88530478(传真)
(010)68768541 (010)68767294(传真)

零售店 读者服务部 北京宇航文苑
(010)68371105 (010)62529336

承 印 三河市君旺印装厂

版 次 2011年1月第1版 2011年1月第1次印刷

规 格 787×960 开 本 1/16

印 张 13.5 字 数 135千字

书 号 ISBN 978-7-80218-882-2

定 价 25.80元(随书附赠MP3光盘)

本书如有印装质量问题, 可与发行部联系调换



从经典中获取文化力量

写在《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出版之际

徐永彬

改革开放后，中韩文化交流是中国对外文化交流中最活跃的组成部分之一。有关于朝韩语言文化的出版物，坊间所见，以教材居多，学习辅助读物也多以美文编选的方式，出版的品类和方式相对单一。作为活跃在小语种出版前沿的宇航社近年来推出了不少有关韩语文化、阅读、学习类的出版物，为推动韩语出版繁荣，推动韩语文化出版作出了应有的贡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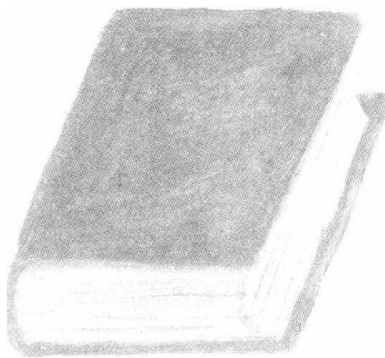
“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是宇航社奉献给广大韩语学习者的一道阅读大餐。据宇航社的策划编辑透露，丛书立意于对韩国人从小必读的世界名著进行精选，遵循以下三个原则：一是韩国最好的名家译本或改写本；二是在韩国受欢迎的必读名著，即销售很好，得到大众认同；三是出版机构要在韩国有一定的文化地位。遵循这些原则，编辑们从韩国知耕社挑选出了曾经获得韩国儿童文学振兴会选定推荐的优秀读物。第1辑共计6本。

当在北京的九所高校的朝韩现代文学的教授、博士们都次第被邀请到宇航社之后我们才知道，宇航社在引进版权后已经在几个高校的学生中就这套丛书的出版风格、生词遴选、体例设计等诸多方面进行了数轮调研。而老师们被邀请来对这套丛书挑毛病、提建议、并担纲编委，其中部分编委被邀请参加第1辑的生词注释工作。

在编委的讨论会上，宇航社提出了要变小语种为多语种的出版思路，并且突出强调了在未来职业生涯中，作为以语言为专业的工作者不应仅仅只是掌握翻译的实用技巧，还要从文化与思维的角度形成对语言文化的深入理解，以此提升职业的文化素养。听到这些主张，对于我这样的教育工作者来说是非常振奋的。我个人认为，教育与出版都是有益世道人心的人文化成。朝韩文化与中国文化之间还有着很多的富矿值得挖掘。

就“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的出版而言，我个人觉得，它对我们广大的读者来说，至少具有以下几个方面的积极意义：

首先是所遴选的名著多为我们中国人所熟悉的，这就为读者提供了理解的基础。而品读名家对这些名著的译解，使我们能更多地活学活用韩语。英语、汉语、韩语的思维方式的差异会让我们在学习中获得多文化的视角。



其次，读名著学语言是语言学习的最便捷也是最有效的方式。读本国名著当然不可或缺，但世界名著有着更为开阔的文化背景。一个能用韩文解读或者讲述世界名著的学习者，必然会增加自己的语言功底。

最后，这是一套为初学者量身定做的韩文版的世界名著，在韩国很是畅销，是诸多社团和大学的推荐读物。中国读者初学者居多，请初学者将有理解障碍的生词挑出来，又有在一线的韩语老师作注解，相信能成为广大韩语爱好者非常实用的学习读本。

丛书取名为“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取意中国古代读书人凿壁偷光的故事，蕴含着从各国文化中撷取精华，从经典中获取文化力量的含义。我以为，对于我们今天的中韩文化交流，是一个美好的期待。

是为序！

（作者系对外经济贸易大学外语学院副院长、“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主编）





차례

❶ 왕자와 마신 2

두반 박사의 목 44

과자 가게 주인과 앵무새 60

비밀의 문 68

❷ 알란더스 90

아브 하산의 방귀 110

마법의 샘 116

³  거짓말쟁이 브하이트 132

⁴  압달라타 탁발승 144

하십과 공작 양자 158

跟名著面对面! 202

히즈 204





洞壁者丛书
韩文版必读世界名著

一千零一夜

아라비안



中国宇航出版社

·北京·

왕자와 마신



옛날 페르시아 왕가에 귀여운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왕은 왕자의 탄생을 몹시 기뻐하며 살칸이라고 이름지어 소중히 키웠다.

살칸이 일곱 살이 되자, 왕은 온 나라 안의 이름난 학자들을 불러들여 왕자를 가르쳤다.

살칸은 워낙 영리한데다 공부하기를 아주 좋아해서 지리와 역사, 천문학 등을 열심히 배웠다. 살칸은 특히 글씨 쓰는 솜씨가 뛰어났는데, 그 글씨는 도저히 어린이가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다.

드디어 샬칸은 스무 살의 청년이 되었다. 그 무렵 샬칸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고, 이웃 나라 인도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인도의 왕은 많은 선물과 함께 페르시아에 사자를 보내 샬칸을 인도로 초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페르시아 왕은 이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여 왕자에게 여행 준비를 갖추게 하고 열 명의 시종을 딸려 인도로 떠나게 했다.

샬칸이 시종을 거느리고 인도로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오아시스 옆에서 쉬고 있는데, 멀리서 모래 먼지가 일고 말의 울음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도적의 무리였다. 다행히도 샬칸은 목숨을 잃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신 없이 계속 달리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샬칸은 광야를 헤메고 다니다가 언덕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나무꾼이 된 샬칸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올라 아침 햇살이 대지 구석

무렵[依]时候

퍼지다[自动]传开

거느리다[他动]率

领, 带领

말발굽[名]马蹄

땅거미가 지다[词

组]夜幕降临

언덕[名]小山坡.

丘陵

햇살[名]阳光, 光线

기슭[名] (山) 麓,

(山) 脚

질질[副] 拖拉的样子

끌다[他动] 拖, 拉

-다시 피[语尾] 如

同, 就像

습격당하다[自动]

被袭击

구석까지 비추기 시작하자 언덕 기슭의 아름다운 마을과 반짝이며 흐르고 있는 강이 눈에 들어왔다.

살칸은 피곤에 지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힘겹게 언덕을 내려갔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슬픔과 허기로 창백해져 있었다.

마을로 가까이 가 보니 생각보다 꽤 큰 곳으로, 아침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살칸은 시장에서 벗어나 정처 없이 골목길을 터벅터벅 건다가 어느 바느질집 앞에 이르렀다.

가게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바느질집 주인은 문득 고개를 들어 살칸을 보더니,

“어이,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안색이 좋지 않군. 게다가 옷은 왜 그렇게 심하게 찢어졌나?” 하고 물었다.

살칸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도적에게 습격당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주인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목소리를 낮추어,

“당신이 페르시아 왕자라는 걸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왕은 당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참으로

사정이 딱하게 됐군요.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십시오. 자, 이 쪽으로…….”

라고 하며 살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서둘러서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 살칸을 대접했다.

밤이 되자 주인은 가게 한쪽 구석에 살칸을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살칸이 머문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바느질집 주인은,

“왕자님,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 중에서…….”

하고 물었다. 살칸은,

“나는 지리와 역사와 천문학을 공부했고, 서가로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소.”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자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익힌 것은 이 마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학문보다 돈벌이가 최고지요.”

그리고 나서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제가 도끼와 새끼줄을 준비해 드릴 테니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와 그걸 장에 내다 파세요.”

하고 권했다.

바느질집 주인은 살칸을 나무꾼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날부터 살칸은 나무꾼의 제자가 되어 나무를 쪼개 장작 다발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을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번 돈의 반은 바느질집 주인에게 건네 주고 나머지 반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 조금씩 모아 나갔다.

왕녀 라이라

어느 날, 살칸은 평소처럼 바느질집을 나섰다. 그러나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산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는 장작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가까이 있는 나무 밑둥을 도끼로 내리친 순간, 쾅그랑 하는 소리가 나며 무엇인가 단단한 것에 도끼가 부딪혔다. 이상하게 생각한 살칸이 주위



의 흙을 털어 내자 구리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나무 두껍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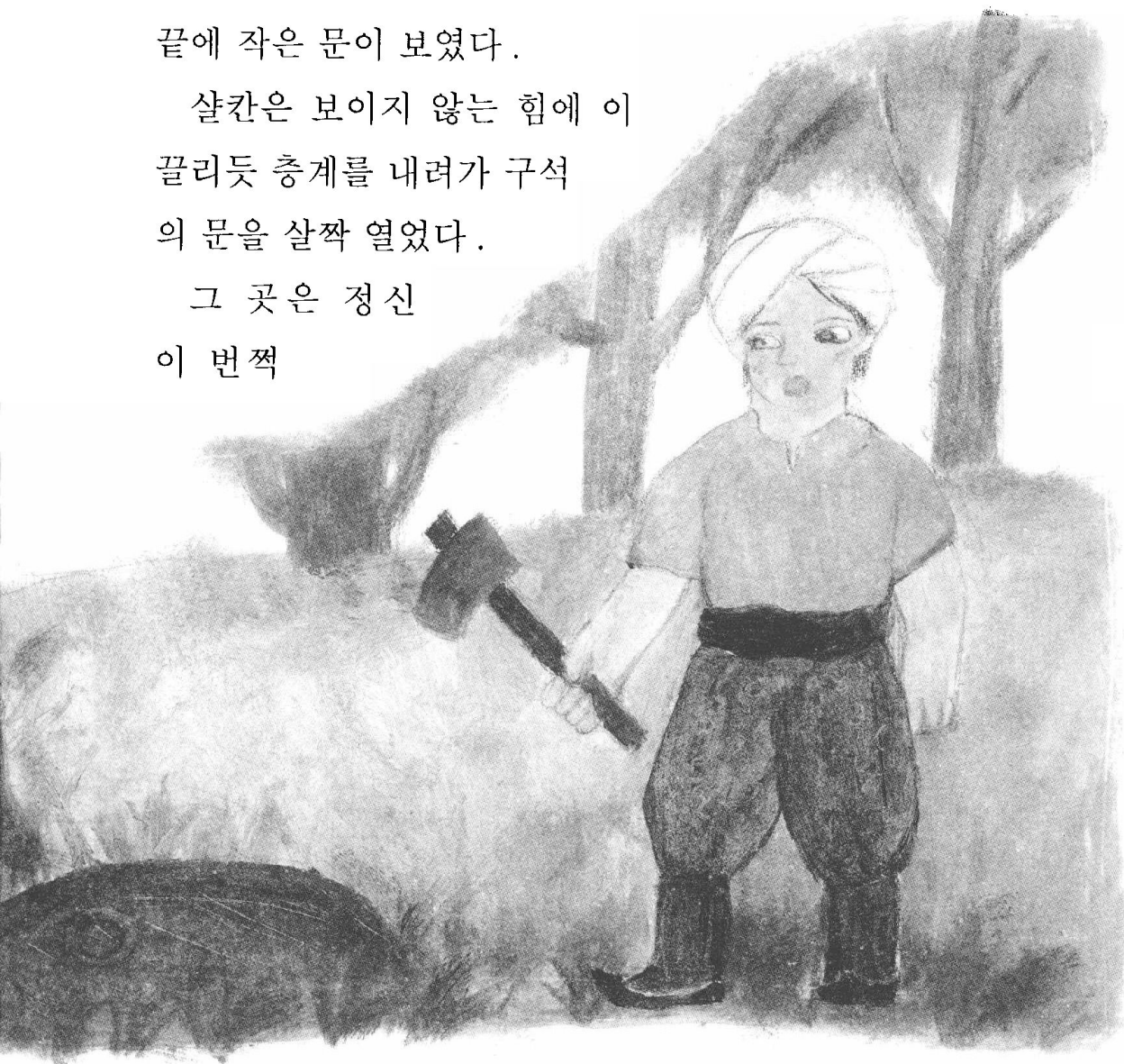
“보물 상자라도 묻혀 있는 것일까?”

샬칸이 혼잣말을 하면서 그 손잡이를 끌어당기자 신기하게도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층계와 그 끝에 작은 문이 보였다.

샬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층계를 내려가 구석의 문을 살짝 열었다.

그 곳은 정신이 번쩍

손잡이[名]把手



당황하다(形) 惊慌,

慌张

들 만큼 넓고 아름다운 방으로, 바깥의 햇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있는 황금 의자에는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진주처럼 아름다웠다.

살칸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렸고, 그 아가씨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당신은 누구세요? 인간인가요, 아니면 마신인가요?” 하고 물었다.

“무, 물론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길 들어오셨죠?”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이 입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살칸은 당황하면서 대답했다.

“당신이 이 곳에 오신 것은 틀림없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 근래 3년 동안 무서운 마신 이외에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예요. 자, 어서 이 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아가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살칸의 손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 눈에는 당신이 원래부터 나무꾼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나는 살칸이라는 페르시아의 왕자인데, 사실은…….”

살칸은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 울먹거리며 나무꾼이 된 사연을 설명했다.

“어머 그랬군요, 딱하게도.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들려 드릴 테니 잘 들어 보세요.”

아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아브누스 국의 왕녀로 라일라라고 해요. 3년 전의 일이었죠. 약혼자인 사촌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 한창 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르지스라는 마신이 갑자기 공중에서 내려오더니 저를 납치해 이 곳에 가둬 버린 거예요. 지르지스는 전부터 절 눈여겨보고 아버님께 저와의 결혼을 조르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상대가 마신이라는 것과 제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거절해 왔죠. 그랬더니 지르지스는 몹시 화가 나서 저를 결혼식장에서 납치했던 거예요.

마신은 저를 이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가구와 음식

울먹거리다[自动]

抽噎

둘러싸이다[自动]

被围绕着, 被

环绕着

새겨지다[自动]被

雕刻, 被刻

과 마실 것 외에도,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예쁜 옷, 보석, 향수 등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호화로운 것에 둘러싸여 있어도 제 슬픔과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신은 열흘마다 여기에 들르는데, 만약 그 사이에 불일이 있으면 저 기둥에 새겨진 두 줄의 선을 만지면 즉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전 지난 3년간 마신 이외엔 아무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슬픔을 떨쳐 버리려는 듯,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에요! 마신이 이 곳에 온 것이 4일 전이니까 앞으로 6일 동안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요?”

라일라는 살칸을 식당으로 안내하였고,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뒤에 라일라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났는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살칸님, 오늘을 기념해서 우리 건배해요.”

“좋습니다.”

살칸도 기뻐하며 찬성했다. 라일라는 서둘러 일어나 찬장에서 포도주를 꺼내 두 사람의 잔에 가득 따랐다.